

전남 해상풍력 시대 연다... 영광서 '전력 자립' 시동

약수 해상풍력 상업발전 개시

4.3MW급... 연간 4천가구 사용량 국내 기술력·주민 상생 모델 주목 완도·신안 등 대규모 사업 가속도

전남개발공사가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앞바다에 조성한 '약수 해상풍력 발전기'가 본격적인 상업발전에 착수하며 전남 해상풍력 시대의 첫 발을 내디뎠다.

23일 오전 찾은 영광군 백수읍 앞바다. 드넓은 바다 위에 우뚝 서 있는 발전기가 한 눈에 들어왔다.

해안으로부터 약 2.5km 떨어진 해상에 설치된 발전기는 국내기업인 유니스(주) 제작한 4.3MW급 1기로 높이 95m, 블레이드 길이 75m 크이다. 회전반경까지 고려하면 해상에서의 영향 높이는 무려 170m에 달하며, 이는 5층 초고층 아파트와 맞먹는 규모다. 해저에는 750톤에 이르는 석션버킷 방식의 강철 구조물이 하중을 지탱하고 있다.

이번 상업발전은 지난 2019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이

후 5년 7개월만에 가능해졌다.

전남개발공사는 총사업비 190억 원을 들여 시공했다. 발전기 제작 및 설치는 국내 기술만으로 진행했으며, 해저케이블은 대한전선, 설치 운반은 동방씨가 맡았다. 시공 과정에 사용된 바지선과 해상 설치 장비 모두 대한민국 등록 선박으로 구성돼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자립을 입증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발전기는 연간 약 9791M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약 40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며, 탄소감축 효과만 해도 14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맞먹는다.

무엇보다 이번 사업이 공공주도로 이뤄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전남개발공사는 발전사업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사업기획, 인허가, 시공, 운영까지 독자적으로 수행했다. 이를 통해 사업 전 주기의 기술 역량 축적과 동시에 향후 해상풍력 전문 O&M(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사업 성공의 또 다른 축은 주민과의 상생이다. 공사는 사업 초기부터 발전기 설치



영광 약수해상풍력 발전현장.

전남개발공사 제공

예정지 인근 어촌계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발전이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발전기금 기부와 함께 사업 과정 전반에 걸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했으며, 마을 어촌계와 주민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약 7억 원 가량의 지원금도 지급했다.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해 수년째 지연 중인 타 해상풍력 사업들과 달리, 공공기관 주도의 안정적인 합의 과정은 민간 사업자에게도 긍정적인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장 큰 난관은 국방부와 의 군 작전성협이었다. 2022년 5월, 해상에 설치되는

발전기가 군 레이더 작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에 국방부가 대체 레이더 설치를 조건으로 내세우며 사업 또한 18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됐다. 전남개발공사는 자체 기술설명서와 학계·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수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해상풍력 발전사업 중 최초로 군 작전성 협의를 완료했다. 이 과정을 통해 4억원의 발전기 보관 비용도 절감했다.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해저공사와 상부 설치 공정이 동시에 진행될 수 없었던 상황에서는 '부분허가' 방식을 도입해 건설 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했다. 영광군과 협의해 하부구조물 설치부터 허가받은 뒤, 군 협의가 마무리되자마자 상부구조물 설치를 이어간 것이다. 이러한 유연한 행정 대응은 사업 전반의 효율성을 끌어올린 결정적 요인이 됐다.

전남개발공사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재 완도 장보고 해상풍력(400MW), 신안 후광 해상풍력(323MW) 등이 예정돼 있으며, 두 사업

모두 2031년 상업발전을 목표로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다.

현재 전남에는 전국 발전사업 허가량의 60%에 해당하는 18.6GW 규모, 총 59개소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추진 중이다. 이 중 신안군은 5.2GW 규모의 집적화단지 지정돼 있으며, 영광(4.2GW), 여수(4.5GW), 진도, 완도, 해남 등도 각각 수 GW 단위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약수 해상풍력의 상업발전은 전남 해상풍력 산업의 출발점이자, 향후 질서 있는 확산을 위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국내 기술, 주민 협력, 공공역량이 모인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대규모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상구 전남도에너지산업국장은 "해상풍력은 단군 이래 전남에서 이뤄지는 최대 사업인 만큼 관련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자재 산업 육성 및 전력다소비 기업 유지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등 전남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적인 풍력시장을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대구시 "달빛철도 예타면제 확정" 촉구

강 시장 등 국회서 공동성명 후속 행정절차 조속이행 요구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가 영·호남 1800만 시·도민 염원을 담은 달빛철도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경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광주-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이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하고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과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에 범정부적 지원과 협조를 약속해 달라고 촉구했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달빛철도 특별법)은 지난해 현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여야의원 발의를 통해 제정됐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해를 넘기며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양 도시는 "달빛철도 특별법은 영호남을 잇는 달빛철도 건설이 지금껏 국토를 세로축 중심으로 개발하면서 누적이었던 불통과 불균형을 넘어 '통합과 균형의 새 시대'를 여는 일이라는 분명한 공감대를 이뤄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호남의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지나는 달빛철도는 상호 교류와 발전의 기회를 만들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렇게 중요한 '달빛철도'가 1년이 넘도록 출발도 하지 못한 채 기획재정부의 책상 위에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경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광주-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23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또 "시급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라는데, 이는 심각한 오관"이라며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은 국가 질병이고 국가균형발전

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호남 상생과 '남부 거대경

제권' 조성을 위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정성아 기자**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덕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24조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일시 : 2025년 5월 9일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천시 해룡산단 2로 22 회의목적사항 (의결사항)
제1회의안 : 본점주소이전건
제2회의안 : 목적변경건
2025년 4월 23일
대륜플랜트 주식회사
사내이사 유 춘 현

한정승인공고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4 누단 558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이혜원 (630618-1655019)
최후주소 광양시 담안2길 36-10, 101동 1103호 (태인동, 선미태인하이츠)
위 이혜원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100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100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승수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5년 4월 24일
공 고 인 : 박정숙 (010-2416-3652)
한정승인 수리일 : 2025년 4월 17일
공고기간 : 2025. 4. 24. ~ 2025. 6. 23.

드론타임 DRONE TIME
고퀄리티 (4K) / 저렴한 가격
드론 촬영·편집
스포츠행사/축제/산업현장
호텔/펜션/학교
부동산광고·분양/지적도
선박특수촬영/생산시설/양식장
아파트/교회
웨딩/이벤트/(웹)드라마 등
드론타임
010-5681-8084

광고문의
팩스 062)519-0709
지동 062)519-0710
全南日報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원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성공을 부르는 **직장인 스피치**
멋지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아버지 스피치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 친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